



울리에 매카시 올센

# 최종 낙점자는?

### 월드컵 축구대표 사령탑 후보

### 울리에·매카시·올센 3명 압축

대한축구협회가 2010년 남아공월드컵 축구대회 아시아지역 3차 예선을 앞두고 축구 대표팀 사령탑을 찾기 위한 숨가쁜 행보를 펼치고 있다.

축구협회는 외국인 감독을 우선 영입한다는 원칙을 정했고, 가삼현 축구협회 사무총장이 직접 유럽으로 날아가 대상자들과 협상을 벌이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현재 유력한 사령탑 후보로 거론되는 후보군은 제라르 울리에(60·프랑스) 전 리옹 감독과 마이클 매카시(48·아일랜드) 올버햄프턴 감독, 모르텐 올센(58·덴마크) 덴마크 대표팀 감독 순으로 압축되고 있다.

▲'지장(知將)' 울리에  
울리에 감독은 1982년부터 세 시즌 동안 랑스를 이끈 뒤 1985년 파리 생제르맹으로 자리를 옮겨 프랑스 1부 리그 우승을 이끌어 낸 지도력을 바탕으로 1992년 프랑스 대표팀 사령탑에 올랐다.

선수들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는 재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울리에 감독은 2000~2001 시즌 리버풀의 리그컵-FA컵-UEFA컵 동시 석권을 이끌고, 올버햄프턴 리옹을 두 시즌 연속 챔피언에 올려놓으며 명장 대열에 이름을 올렸다.

▲'카리스마' 매카시  
현재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리그) 올버햄프턴의 감독을 맡고 있는 마이클 조셉 매카시 감독은 1984~1992년(A매치 57경기 2골)까지 아일랜드 대표팀 중앙수비수로 활약했다.

매카시 감독은 1992년 밀월(잉글랜드) 사령탑을 시작으로 1996년 37살의 젊은 나이

로 아일랜드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은 뒤 2002년 한일월드컵 때 아일랜드를 16강으로 이끌면서 차세대 명장으로 자리를 굳혔다.

특히 2002년 한일월드컵을 치르면서 당시 팀의 주축 멤버였던 로이 킨(현 선덜랜드 감독)이 감독의 준비 부족을 비판하자 첫 경기를 앞두고 귀국시킨 대쪽같은 성격으로 유명해졌다.

2003년 3월 2부리그 강등 위기에 빠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의 사령탑을 맡은 매카시 감독은 2004~2005시즌 챔피언십 우승으로 팀을 프리미어리그로 끌어올렸다.

▲'스타플레이어 출신' 올센  
모르텐 올센 감독은 현역 시절 덴마크 대표팀 수비수로 선수로 1970~1989년까지 A매치 102경기에 나서 덴마크 사상 첫 '센트리 클럽'(A매치 100경기 이상)에 가입했던 스타플레이어 출신 사령탑이다.

1990년 1월 덴마크 브린비IF 클럽의 사령탑을 맡아 두 시즌 연속 우승으로 이끈 올센 감독은 1992년 독일 분데스리가 FC 쾰른을 맡아 강등 위기에서 구해내는 지도력을 발휘,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1996년 네덜란드로 방향을 바꾼 올센 감독은 아약스를 1997~1998 시즌 챔피언에 올리고 더치컵까지 챙기면서 2관왕에 올랐다.

아약스를 그만둔 올센 감독은 2000년 덴마크 대표팀 사령탑을 맡아 2002년 한일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뒤 4년 연장 계약을 맺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울리에 감독, 잉글랜드 감독 후보로도 추천

차기 한국축구 대표팀 유력 후보인 프랑스 출신 명장 제라르 울리에(60) 감독이 역시 공적인 잉글랜드 감독 후보로도 적극 추천됐다.

데이비드 데이 전 프리미어리그 아스널 부회장은 28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잉글랜드가 차기 감독 선임 과정에서 여러 석계도 울리에를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28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축구 내셔널리그 챔피언결정 2차전 울산현대미포조선과 수원시청의 경기에서 미포조선 김원재(오른쪽)와 수원시청 한동혁이 볼다툼을 벌이고 있다. /연남뉴스

## 호날두 결승골... 맨유 5연승 질주



### AS 로마, 디나모 꺾고 16강 진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꿈의 무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거침없이 5연승을 달렸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이끄는 맨유는 28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2007~2008 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조별리그 F조 5차전에서 후반 인저리타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프리킥 결승골이 터져 스포르팅 리스본(포르투갈)에 2-1 역전승을 거뒀다.

스포츠링 유소년아카데미에서 성장한 포르투갈 출신의 호날두는 지난 9월 리스본 원정에서도 결승골을 터트린 데 이어 두 번 연

속 진전임을 보였다. 대회 5골로 득점 선두도 질주했다.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된 맨유는 5전 전승으로 한 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조 1위로 확정했다.

같은 조 AS로마(이탈리아)는 디나모 키예프(우크라이나)를 4-1로 대파, 3승1무1패로 16강에 진출했다.

H조에서 세비야(스페인)는 아스널(잉글랜드)의 무패 행진을 저지했다.

세비야는 홈 경기에서 케타라, 루이스 파비아누, 프레데리 카누테가 연속골을 퍼부어 아스널을 3-1로 눌렀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무패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아스널은 2007~2008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첫 패배를 당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미포조선 내셔널리그 우승 내년 시즌 K-리그로 승격

실업축구 강호 울산 현대미포조선(이하 미포조선)이 내셔널리그 정상에 올라 내년 시즌 프로축구 K-리그에 합류할 수 있는 자격을 따냈다.

2007 전반기 리그 1위 미포조선은 28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챔피언결정 2차전 원정 경기에서 후반기 1위 팀 수원시청에 4-1 대승을 거뒀다.

이로써 지난 23일 홈 1차전에서 3-0 몰수승을 거뒀던 미포조선은 통합 성적 2승으로 우승, 내년 K-리그에 오를 수 있게 됐다.

미포조선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요구하는 가입비 10억원과 축구발전기금 10억원을 납부하고 경기장 시설 및 구단 운영계획 등의 조건을 갖춘 뒤 K-리그 심사를 통과할 경우 2008년부터 프로 무대에서 뛠 수 있다. 미포조선이 뛰어들 경우 내년 K-리그 참가팀은 15개로 늘게 된다.



## '마린보이' 박태환 올림픽 2관왕 향해 내달 말 호주 전훈

'마린보이' 박태환(18·경기고·사진)이 다음달 29일 호주 시드니로 떠나 베이징올림픽 2관왕을 향해 본격적으로 출발한다.

박태환 전담팀을 꾸리고 있는 수영용품 전문 브랜드 스피도는 "12월 29일 시드니로 출국해 전지훈련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귀국은 설 연휴 직전인 내년 2월5일이며 훈련 기간은 5주가 조금 넘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달 초부터 중순까지 시드니와 스웨덴 스톡홀름, 독일 베를린을 돌며 국제수영연맹(FINA) 경영월드컵 3개 시리즈에 출전해 9개의 금메달을 따낸 박태환은 애초 다음달 중순께 전지훈련을 떠나기로 했지만 예정보다 늦춰졌다.

이유는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 현지 수영장이 모두 문을 닫기 때문. 박태환은 크리스마스를 국내에서 보내고 흥겨운 마음으로 전지훈련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박태환은 내달 30일 시드니에 도착하면 휴식을 취한 뒤 31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간다.

장소는 최근 경영월드컵이 열렸던 올림픽 파크 아쿠아틱 센터. 호주의 중·장거리 강자 캔디 몽크를 전담 지도하는 토니 쇼 코치가 클럽을 운영하는 곳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9일(목)

- ▲NBA <클리블랜드> 디트로이트(09:25·SBS스포츠)
- ▲전국레슬링 선수권(14:10·KBS1)
- ▲여자프로농구 <신세계> 금호생명(16:50·SBS스포츠)
- ▲프로농구 <삼성> KTF(18:50·Xports·SBS스포츠)
- ▲The Nedbank 골프랭킹 1R(21:00·Xports)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합격률 1위**

개강 12월 3일

"무트청감" 해주실까요? 무료! 무료!

광주고시학원

제18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합격증 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시작, 전국수석합격 2명 배출 (신태환·최영아)

새로운 행정고시학원

쓸수록 돈 버는 냉·난방기 부담 없이 구입하세요!

600원 공장의 난방비를 8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절감한 신 기술

난방비 1/3로 줄었다!

민정수당 혜택만도 무상 지원금 혜택

TEMPIA

0621 955-4222

080-701-7117